

## 미·중 무역 분쟁 관련 環球時報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중심으로 —

최 태 훈

(건국대학교 조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환구시보 4월 7일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에 대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기술, 상호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설은 '戰爭'과 관련된 어휘와 프레임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貿易戰"과 "抗美援朝"는 은유와 전쟁프레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戰略"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전쟁 용어가 사용되었다. 넷째, '引喻法'을 살펴보면, 전쟁관련 표현이 보인다.

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구시보가 '대등한 보복'을 줄곧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의 반격을 정당화하고,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도록 포장해 주기 위함이다. 둘째,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려워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민의 결집을 호소, (2)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 (3) "두려워지 않다"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보내기 위함이다. 맥락상 같은 논지가 약 3개월(2018.03.23.-06.17)의 시간차를 두고 9개 사설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본 사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에 있다. 첫째, 핵심 국책사업 '中國製造2025'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둘째, 사설은 "抗美援朝"를 소명하여 미국을 비난·협박하고, 민심의 이반을 다독이며 결집을 호소, 시진핑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주제어 : 환구시보, 사설, 비판적 담화분석(CDA), 미·중 무역전쟁, 텍스트 기술, 상호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수행

## 1. 연구배경과 방법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국의 관세 부과 마찰은 ‘무역전쟁’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분쟁의 진행 양태는 미국의 선언적인 관세 부과 방침 발표와 중국의 저항이 주를 이룬다. 그 저항 가운데 중국의 마스크 역시 反美의 목소리를 내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환구시보는 미국과의 관세문제가 첨예화 될 때마다 다수의 사설과 강한 어조로 상대를 비난해 왔다. 그 제목을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월 22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한 후로, 환구시보의 논조는 급격히 강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결연히 무역에서의 미국의 기고만장함을 이겨야한다」(3/23: 「堅決打掉美在貿易上的囂張氣焰」)와 「트럼프의 오만한 군대는 반드시 좌절할 것이며, 베이징은 결연히 반격해야한다」(3/23: 「特朗普驕兵必挫, 北京將堅決反擊」) 등 23일자 두 편의 사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그 분함이 삭혀지지 않았는지 「중국은 무역전쟁을 끝까지 상대해 줄 충분한 실력이 있다」(3/25: 「中國有充足實力對貿易戰奉陪到底」)와 「미국의 작용이 크면 클수록 중국의 반작용도 더욱 강해진다」(3/28: 「美方作用力越大, 中方反作用力越強」)와 같은 결의에 찬 사설을 실었다.

4월 1일 중국 상무부는 돼지고기,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질세라 4월 3일 미국도 중국산 1333개 품목에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적용 방침을 발표한다. 나아가 중국 역시 4월 4일 500억 달러의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관세 부과를 언급한다. 트럼프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월 5일 1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안 검토를 지시하게 된다.

4월 초에 벌어진 양국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은 마치 포커 판의 ‘레이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환구시보는 「트럼프가 더욱 큰 으름장을 놓아서 중국을 억누르려는데, 가소롭다.」(4/6: 「特朗普用更大恫嚇欲鎮中國, 可笑」), 「설령 중미무역이 제로로 돌아가도, 중국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4/6: 「即使中美貿易歸零, 中國也不會后退」), 「항미원조 전쟁을 했던 의지로 대미 무역전쟁을 하자」(4/7: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등 대단히 선동적인 제목의 사실을 신개 된다.

이러한 양국의 대립은 5월 19일(미국시간) 국무원 부총리 劉鶴이 중국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여 상호 관세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통해 타협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14일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환구시보는 이번에도 역시 「미국이 다시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결연히 주저 없는 대응으로 반격하겠다」(6/15: 「美重啓貿易戰, 中國堅決反擊坦然應對」)와 「중국의 싸움은 대미 무역 자위 반격전이다」(6/17: 「中國打的是對美貿易自衛反擊戰」) 등으로 ‘반격’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7월 6일 미국이 중국산 기계, 선박, 항공, 통신, 철도 등의 818개 품목 34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차량 등의 품목 340억 달러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위와 같은 미·중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4월 7일자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이란 사실이 한국 언론에 주목을 받으며, 내용의 대부분이 소개되었다.<sup>1)</sup> 그 기본 취지는 6·25 전쟁 때 자신들이 미국과 싸웠던 의지로 무역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6·25 전쟁의 중국 개입은 ‘전쟁의 장기화’, ‘1·4 후퇴’, ‘예상치 못한 반격’, ‘막대한 피해’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내용은 분명 미국을 협박하겠다는 것이지만, 언급된 역사적 사실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게 하고 있다.

1) 『KBS NEWS』(2018년 4월 8일), 『아주경제』(2018년 4월 8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117&ref=D\(2018.08.03. 검색\)](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117&ref=D(2018.08.03. 검색))  
[http://www.ajunews.com/view/20180408131439832\(2018.08.03. 검색\)](http://www.ajunews.com/view/20180408131439832(2018.08.03. 검색))

이에 필자는 한국에서 집중 조명된 본 사설을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틀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한 방향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되풀이 되는지 파악하는 담화분석이다. 비판적 담화분석의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가 “국가 정체성의 고취 같이 이념성을 띠는 정치적 의제의 설정이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성취와 관련된 정치담화”<sup>2)</sup>임을 고려했을 때, 본 사설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엿보이는 분석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비판적 담화분석의 목표는 권력을 실어 나르는 구체적 운반 수단인 담화를 통하여 이데올로기가 생산·재생산되는 과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sup>3)</sup> 즉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담화 안에 있는 권력 관계를 찾아내고, 그 권력 관계가 생산·재생산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론이다.(이원표, 2001, 2005, 2009, 2015)

그러나 CDA의 방법론은 규정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CDA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페어클로의 담화분석 3단계를 소개하고(표1 참고), 그의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핵심 분석 자료는 4월 7일자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sup>4)</sup> 사설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8개의 사설들(위에서 언급한 사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

첫째, 4월 7일 사설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된 언어적 속성은 무엇인가?

둘째, 4월 7일 사설은 미·중 무역전쟁 관련 환구시보 다른 사설들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어떤 담화를 생산·재생산하는가?

셋째, 4월 7일 사설의 의도된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2) 이원표(2015), 『한국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39면에서 De Cillia 외, 1999; Pardo, 2001; Ricento, 2003 재인용.

3)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34면.

4) 본 사설의 전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1. 페어클로 담화분석의 3단계 작업(최윤선, 2014, p.26)

분석차원	단계	내용
텍스트	기술	해당 텍스트에 작동하고 있는 언어학적 속성들을 기술하는 단계
담화수행	해석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수행과정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단계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	텍스트의 산출 및 해석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결정 내용 및 그것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

## 2. 선행연구: 정치미디어 비판적 담화분석

### (1) 비판적 담화분석 접근법

Fairclough(1989, 1995, 2003)의 3단계 구도분석 접근법을 언급해 보겠다. 페어클로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방법을 정초한 가장 중요한 학자이다. 페어클로(1989)는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언어분석을 활용하지 않는 사회과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CDA(Critical Discourse Analysis: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론을 정초하였다. 우선 그는 『언어와 권력』을 집필하여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언어를 통해 수립하고 전파하는지의 작동원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담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 1) 텍스트, 2) 상호작용, 3) 사회적 맥락을 제시하고 담화분석의 세 단계로 1) 텍스트의 기술(記述), 2) 텍스트 및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解釋), 3) 상호작용 및 사회적 맥락 사이에 있는 관련성에 대한 설명(說明)을 제시하였다 (페어클로, 1989, p.67, p.213). 또한 페어클로(2003)는 텍스트 분석이 어떻게 사회조사 연구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비판적 담화분석의 작동 단계(p.481)”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단계 2와 3에 제시된 분석방법, 즉 텍스트 구조분석, 상호텍스트성, 사회질서와 관련해 최근의 CDA 분석의 초점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2) 정치 담화에 흔히 사용되는 언어전략: 프레임과 은유

정치 담화에 흔히 사용되는 언어전략으로 본 논문의 분석과 관련이 있는 프레임(frame)의 기능 및 은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프레임 분석은 연구자에게 언어 사용의 미시와 거시 구조의 분석틀을 제공한다(Lakoff, 2015, 2016). 레이코프(2015, 2016)에 따르면, 인간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많은 대조적인 층위의 추상을 통해 작동된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인지할 때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같은 말에 대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다양한 현실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프레임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건을 이해하는 구성 원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현실을 일차적인 프레임을 통해 인지지도(schema)를 만들어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의미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은유는 정치 담화 분석에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언어적 기제로 흔히 사용된다. 은유는 “‘‘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근원영역(source domain)’을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좀 더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목표영역을, 유사성이나 유추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좀 더 단순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근원영역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이원표, 2015, p310). 은유는 언어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몇 개의 어휘의 사용만으로도 그 어휘와 관련된 근원영역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언어기제이다. 특히 은유는 무의식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많은 연관 관계를 정치담화에 끌어들이므로써 정치행위자의 의도를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선동하는데 효과적이다(신선경, 2006).

최태훈의 (2018) 사드관련 환구시보 사설의 비판적 담화분석에 따르면 은유는 한국을 비난하고 협박해 중국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언어기제로 빈번히 사용되었다. 사드배치를 “毒瘤(악성종양)”로, 미국(大國)에 휘둘러 사드를 배치한 한국을 “부평초”라고 은유하고 있다. 즉 사설은 한국이 “북핵 위기와 대국게임의 판에서 정치 없이 흘러 다니는 “浮萍”(부평초)가 되고, 朝鮮의 人質되고, 미국의 頭陣(선봉)이 되고, 中俄兩國의 戰

略瞄准對象이 된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p.230)이다.

### (3)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텍스트성을 이성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2012, p300).

각 텍스트가 다른 특정 텍스트들과 갖는 기본관계이다. 텍스트는 언어 외적인 이전역사와 배경 및 언어 내적인 선행 구조에 기초하여 생겨난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이미 생산된 어휘 단위들과 표현들, 주제와 주제들, 작성 모형과 텍스트 모형 등의 변형적, 해석적 재수용과 연속 가공을 거쳐 구성되고 바로 그런 의미로 수용되기도 한다.

정치미디어 담화의 사례분석에 있어서 신문 사설의 경우 상호텍스트성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첫째, 하나의 사설의 제목과 본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둘째, 본문 내에서의 상호텍스트 관계를 중심으로 재작성 모형 살펴보기, 셋째, 하나의 사설의 전후 사설을 표제들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첫째, 사설의 제목은 저자가 본문에서 제시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시기능을 지닌다. 제목은 “텍스트의 뼈대정보라는 특별한 위상”(이성만, 2012, p.307)을 지니기 때문에 저자는 제목을 통해서 독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기를 원하는지를 드러내며 본문의 내용은 그와 같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둘째, 본문의 재작성 모형은 미디어 텍스트의 관계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텍스트 수용자의 해석에 역동성을 부여한다(이성만, 2012). 본문은 제목이 지시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시 관계를 드러내는 메시지의 다시 쓰기, 바꿔 쓰기, 빗대어 말하기(인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다.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불러일으켜 텍스트를 이해하는 인지과정을 동반하게 되어 텍스트와 맥락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저자가 생산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쳐 재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

셋째, 통시적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에 선행하는 텍스트와 후행

하는 텍스트의 관련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일련의 텍스트들에서 ‘인용하기’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일차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은 ‘인용하기’와 같이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숨겨진 상호텍스트성은 메시지의 부분 일치, 통사적 또는 어휘적 구문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이성만, 2012). 통사적 상호텍스트성은 정치담화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복적으로 생산·재생산하여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장치이다.

### 3. 텍스트 기술: 전쟁어휘와 전쟁프레임

비판적 담화분석의 언어적 특징을 드러내는 기제들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어휘가 하는 말에 집중하면 갈등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최윤선, 2014). 즉 중국의 이해관계가 이 사실의 ‘戰爭’ 관련 어휘 선택을 통해 어떻게 들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전쟁프레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貿易戰”

“貿易戰”(22회) 은유로 분석이 가능하다.<sup>5)</sup> ‘전쟁(戰)’에 대한 연상 작용은 다양한 관련 심상을 떠올려 ‘무역(貿易)’에 대응시켜 해석된다. 이에 독자는 ‘무역’을 전쟁의 잔인함·절박함 등과 관련지어 연상하여 싸움·반격·전투·보복·전략 등으로 의미를 확대재생산한다. 그 결과 본 사실은 해

5) 임혜원(1997), 「선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 “선거는 전쟁이다”」, 『담화와 인지』 4권, 91면에서 Lakoff(1994)인용: “예를 들어 선거 기사에 빈번히 등장하는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독자는 원천영역(soure domain)인 ‘전쟁’의 프레임으로 목표영역(target domain)인 선거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원천영역인 ‘전쟁’의 프레임으로 목표영역인 ‘무역’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당 어휘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사태의 급박함을 표현하고, “抗美援朝(4회)”라는 진짜 전쟁과 관련된 기억을 중국 인민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抗美援朝的發生是因爲美國軍隊打到了鴨綠江邊), ‘우리가 그때 미국의 공격을 어떻게 견디어 냈지?’(美軍飛機大炮對志願軍“一把炒面一把雪”的戰鬥. “中國人躲進坑道里, 美國人狂轟濫炸”), ‘그 전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지?’(它迫使美方在三八線上最終簽字, 重創了華盛頓的戰略傲慢, 贏得了之後很多年美國社會對中國的戰略尊重.) 등 전쟁의 전 과정을 연상시켜 오늘날의 무역전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원천영역(source domain) ‘전쟁’→목표영역(target domain) ‘무역’의 은유가 성립되듯이, 원천영역 “抗美援朝”→목표영역(target domain) “무역”으로의 은유도 성립 가능하다. 또한 “貿易戰”과 “抗美援朝” 이 두 표현은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당면 문제에 절박하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쟁프레임을 갖춘 어휘인 것이다.

## (2) “戰略”

“戰略”(10회) 역시 ‘전쟁’과 관련된 어휘이며, 바이두를 참고해 보면 가장 이르게는 군사방면의 개념임을 명시하였다.(“戰略一詞最早是軍事方面的概念”) 오늘날에는 전쟁, 정치, 경제 따위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본 사실은 “戰略”이란 어휘가 중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미국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要求我們有同樣不怕犧牲、不惜代價的戰略氣概(문단7)

由于貿易戰帶來的痛苦將刺激中國經濟轉型和戰略創新能力(문단10)

“戰略氣概(전략적 기백)”, “戰略創新能力(전략적 창의력)”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분명히 긍정적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관련하여 “戰略”이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戰略”이 군사방면의 개념임을 분명히 인식

6) 네이버 국어사전.

할 수 있는 사용 예를 찾을 수 있다.

這不是普通貿易戰，而是美方遏制中國崛起、要將美國全面優勢永久化的戰略行動。(문단3)

這場貿易戰是……并且突出大國戰略博弈之后發生的，……(문단4)

重創了華盛頓的戰略傲慢，……(문단7)

“전면적 우세를 영구화하려는 전략행동”, “대국전략게임”, “워싱턴의 전략적 오만” 등은 부정적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관련된 “戰略”이란 어휘가 보이는 문장에서는 전반적 내용이 부정적 뉘앙스를 이끌어 내고 있다. “戰略” 자체가 전쟁프레임을 전제하는 어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 사설은 의도적으로 중국에는 긍정적 이미지, 미국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다양한 전쟁 용어

“打”가 10번에 걸쳐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다. “打抗美援朝”, “打~戰(2번)”, “打擊”, “將貿易戰打下去”, “打垮”, “美國軍隊打到了鴨綠江邊”, “打痛華盛頓”, “堅決打出迫” “一起打” 등이 있다. 나아가 “痛擊”, “進攻”, “交鋒”, “爆發”, “戰鬪”, “挑戰” 등 싸우다, 공격하다, 때리다 類의 호전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武器”, “彈藥”, “美軍飛機大炮”, “志願軍”, “戰前動員7)”, “核心利益線8)”, “人在陣地在”9), “防線”, “勢均力

7) 전쟁 준비가 끝나고 開戰 직전에 싸움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하는 말을 “戰前動員”이라함.(바이두 참고) 여기에서는 무역마찰 시작 전의 一聲으로 판단된다.

8) 중국에게 ‘核心利益’이란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중대한 이익, 즉 ‘타협의 여지가 없는 국익’을 말하는 것이다. 6·25 당시 미군이 압록강에 다 달은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核心利益線’을 건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9) “人在陣地在”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있으면 진지가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최후의 한 사람(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陣地”가 되어(진지의 역할을 하여) 방어를 한다는 매우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표현이다.

敵”, “抵抗勢” 등은 전쟁과 직접 관련 있는 표현들이라 할 것이다. 이밖에 沖擊, 沖突, 較量, 粗暴, 霸權, 大棒 등도 전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어휘들이다.

#### (4) ‘引喻法’에 보이는 전쟁 관련 표현

관련 예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這次美方發動貿易戰的方式尤其粗暴, 開出的是讓中國“自廢武功”的價碼, 它在將中國逼上梁山.(문단6)

今天的中美貿易戰是大體勢均力敵的較量, …… 這將不是美軍飛機大炮對志願軍“一把炒面一把雪”的戰鬥.(문단9)

“中國人躲進坑道里, 美國人狂轟濫炸”不可能是這場貿易戰的邏輯.(문단10)

먼저 예문 문단 6에 보이는 “自廢武功”이란 표현은 무협소설에 나오는 용어로 자신의 실수, 죄,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그간 쌓아온 실력(무공)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 제일 패권에 도전한 중국이 스스로 패배·죄를 인정하고, 미국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알아서 도전적 행위를 멈춘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自廢武功”이 무협소설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지만, ‘전쟁’이 무협소설 속의 ‘싸움’과 다르지 않음을 수용한다면 “自廢武功” 역시 전쟁프레임의 어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逼上梁山”이란 표현이 나온다. 이것을 직역하면, “양산으로 내몰려 올라간다”는 의미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梁山”은 『水滸傳』 소설 속 영웅들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다. 소설의 설정은 이들 영웅들이 송나라 조정의 무능, 부패, 핍박을 피해 “梁山”에 내몰려 와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은 그 점을 강력히 부각하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不義한 송나라에 의해 영웅들이 양산으로 내몰리듯이, 不義한 미국에 의해 정의로운 중국이 내몰려 세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水滸傳』의 전쟁프레임을 통해 미·중 무역전의 양상을 절묘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自廢武功”과 “逼上梁山”은 일종의 ‘引喻法’<sup>10)</sup>에 해당된다. 즉 저자는 소설 속의 표현을 자신의 사설에 인용하여 뜻하고자 하

는 의도를 상당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단 9의 “一把炒面一把雪(한 줌의 볶음면과 한 줌의 눈)”는 抗美援朝 시기 중국 志願軍의 형편없는 식사, 즉 고생스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큰 고난을 견디며 미군과 대적해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들 스스로가 당시의 어려움을 상기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강냉이 죽’이 6·25 전쟁의 고난과 굶주림을 한국인에게 상기시키듯이, “一把炒面一把雪”은 중국인에게 抗美援朝 전쟁의 참상과 굶주림을 떠올리게 한다. 美軍이 가지고 있던 “飛機大炮”와 志願軍이 가지고 있던 “一把炒面一把雪”의 대조를 통해 과거 양국의 戰力 차이와 고난의 정도를 추론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의 무역전은 힘의 차이가 과거만큼 현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전쟁프레임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인유법’으로 볼 수 있다.

문단 10의 “中國人躲進坑道里, 美國人狂轟濫炸” 역시 항미원조 전쟁으로부터 나온 표현이다. 원뜻은 “중국인은 갭도에 숨어 들어가고, 미국은 미친 듯이 폭격하다”라고 풀이가 가능하다. 나아가 전체 문장은 이런 戰力의 차이에서 오는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은 오늘날의 무역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임을 설명하고 있다. 본 사실이 항미원조 당시의 중국군의 고생스러움을 표현한 “一把炒面一把雪”과 “中國人躲進坑道里, 美國人狂轟濫炸” 등을 사용한 이유는 오늘날의 무역전쟁은 양국의 힘이 대등하다는 전제하에, 열악한 조건하의 과거의 전쟁도 견디어 싸웠는데 이런 무역전쟁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중국 인민들에게 주고, 사기를 고취시키고, 결집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10) 비유법의 하나. 유명한 시가(詩歌), 문장, 속담, 고사(故事) 따위를 자신의 문장 표현에 인용하여 표현 내용이 함축성을 띠도록 보충하는 수사법이다. (다음 국어사전) 사실은 원문에서 “自廢武功”, “一把炒面一把雪”, “中國人躲進坑道里, 美國人狂轟濫炸” 등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였다. 반면 逼上梁山에는 인용부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逼上梁山 이 자체가 『水滸傳』에 얽힌 표현이고 함축성을 띠고 있음으로 인유법으로 간주하였다.

#### 4. 상호텍스트성: “대등한 보복”과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

신문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설의 기본 논조가 다른 사설과 어떤 상호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1) 대등한 보복

먼저 4월 7일자 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北京有能力……讓美方蒙受與中國大致相同的損失.(문단9)

這場貿易戰是中美一起打, 一樣痛.(문단10)

美方用貿易戰施加的壓力有多大, 我們的反作用力就將有多大.(문단11)

위 문장을 해석하면, “북경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체로 비슷한 손실을 입도록 할 능력이 있다”, “이 무역전쟁은 미·중이 같이 싸우고, 똑같이 아프다”,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가하는 압력이 얼마가 되든, 우리(중국)의 반작용력은 그 만큼이 될 것이다”란 의미이다. 이것은 중국이 당한 만큼 미국에게 보복해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이 ‘같은 분량의 보복’을 미국에게 하겠다는 점에 있다. 자신들이 받은 공격 이상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본 사설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最終報復金額將與美方對等.(3/23: 堅決打掉美在貿易上的囂張氣焰)

中方明確決定應戰、同等規模報復措施……(3/24: 中國既堅定又冷靜, 打還是談請美方選)

中國按照對等報復原則…….(3/28: 美方作用力越大, 中方反作用力越強) 那就是中國必將再開展 “同等力度、同等規模的對等措施” 予以反擊(4/6: 特朗普用更大恫嚇欲鎮中國, 可笑)

宣布了對500億美元美國商品加征關稅的對等報復措施.(4/6: 即使中美貿易歸零, 中國也不會後退)

위의 예는 4월 7일자 보다 앞선 사설에 보이는 “報復”과 “反擊”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다. 모두 “同等” 또는 “對等”을 같이 사용하여 “報復” 또는 “反擊”하겠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는 시간적으로 앞선 사설의 맥을 이어 동일한 논지를 수용하고, 다시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구시보는 어떠한 의도로 ‘대등한 보복’과 ‘동등~ 반격’을 줄곧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답은 6월 17일 사설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中國打的是一場對美貿易自衛反擊戰……中國講究后發制人，強調同等規模、力度的反擊，以保證有理有力有節……“自衛反擊戰”(6/17: 中國打的是對美貿易自衛反擊戰)

주지하다시피 “反擊”이나 “報復”이란 어휘는 먼저 공격을 당한 측이 이후에 되돌려 공격하거나 되 값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반격(보복)은 작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반작용이 나올 뿐이다. 이것은 중국이 자신의 반격(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부과하는 수사학이다. 또한 공격을 당하고 나서도 “同等”한 규모와 힘의 “反擊”을 가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성적이고, 힘이 있고, 절조가 있는(有理有力有節)’ 중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연히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치르게 될 무역전쟁을, 먼저 피해를 입은 평화주의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루는 반격전으로 포장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中國打的是對美貿易自衛反擊戰」 사설의 논지는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에 이미 투영되어 보이고 있다. 즉 환구시보는 “自衛反擊戰”의 역사 속 롤모델을 “抗美援朝” 전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抗美援朝” 전쟁은 “核心利益線”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치룬 “自衛反擊戰”인 것이다. 따라서 4월 7일자 사설과 6월 17일자 사설의 연계는 환구시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전형적인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등한 보복’에 대하여 다른 측면의 평가도 가능하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 싸움을 함에 있어 싸우고 싶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는 ‘사인’으로도 읽힌다. 보복은 당연히 두 배, 세 배, 그 이상의 보복을 해주어야 진정한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상대의 재 보복 의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등한 보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모순된 표현을 통해 무역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 (2)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

환구시보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의도는 다른 사실을 통해서도 보이고 있다. 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我們不想與美國冲突……那么是禍躲不過，我們就該坦然與之較量。(3/23: 堅決打掉美在貿易上的囂張氣焰)

中美之間不應該打貿易戰，……那么我們一不會怕，二不會躲。(3/23: 特朗普驕兵必挫，北京將堅決反擊)

中國不想打貿易戰，但絕不怕貿易戰真的打起來，不怕它變成中美之間的一場持久戰。(4/6: 特朗普用更大恫嚇欲鎮中國，可笑)

我們不想打但也不怕打貿易戰的基本態度堅定不移。(6/15: 美重啓貿易戰，中國堅決反擊坦然應對)

“不變”指的是我們不想打，但不怕打貿易戰的態度。(6/17: 中國打的是對美貿易自衛反擊戰)

위의 사실들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싸우기 싫다”라고 말한 이후, “(싸움이) 두렵지 않다”라고 줄곧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기타 사실들도<sup>11)</sup>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뿐 기본적인 논조는 모두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몇 가지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논해 보겠다.

첫째, 글의 내용은 중국이 ‘강하다→두렵지 않다(자신 있다)→이길 수 있다’의 직선적 논리전개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특전사 동계훈련 시에

---

11) 我們不想與美國冲突……那么是禍躲不過，我們就該坦然與之較量。(3/23: 堅決打掉美在貿易上的囂張氣焰)，中國人對“不惹事，但決不能怕事”的經驗總結有幾千年的積淀。(4/6: 即使中美貿易歸零，中國也不會後退)

윗옷을 벗어던진 군인들이 기자 인터뷰를 하며 “하나도 안 춥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과 유사하다. 일종의 자기 최면으로 중국인민을 격려하여,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은 이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치부해 결집을 호소하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다.<sup>12)</sup>

둘째, 계속해서 “무섭지 않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독자(중국인민)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레이코프가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에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sup>13)</sup> 이렇게 만들어진 공포는 인민들에게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두려움’을 활용해 인민의 결집을 호소하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두렵지 않다” 보다는 “싸우기 싫다”에 무게 중심이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더 지속적으로 보내는 고도의 수사학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동등한 보복’은 ‘싸우기 싫다’의 속내를 보여주는 모순된 표현이다. 그러나 ‘싸우기 싫다’고만 표현한다면 중국의 체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스스로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싸움하지 말자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가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의 논리로 여러 사설에서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야만 한다면, 중국은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는 것이다. 4월 7일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도 글의 구조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문단1~6)는 무역전을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후반부(7~11)는 抗美援朝 전쟁을 끌어내어 미국과의 무역전이 두렵지 않으며, 인민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논지가 조금씩 다른 표

12) “두렵지 않다”라는 언표는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기방어 기제(self-defense mechanism)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도망가거나 얼어붙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인간의 진화적인 생존전략을 그대로 그려내는 언명인 것이다.

13) 조지 레이코프/유나영 (옮긴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와이즈베리.



현방식으로 두세 달의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 사실에 보이는 것은 정치미디어 담화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 할 것이다.

## 5. 사회문화적 수행: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 전파

본 연구에서 사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이 중국 정부의 핵심 이데올로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어떻게 하였는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 자료인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그 함의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미·중 사이에 얽혀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맥락 파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의 징조는 그의 대통령 당선 전으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국으로 인해 6만개의 미국 기업이 문을 닫았고, 3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유세하였다. 지금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이들에게 회사와 일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된 셈이다. 즉 오늘날의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공약 이행을 위한 하나의 ‘실천’인 것이다.<sup>14)</sup> 당연히 공약이행 행위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이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를 고려해야 하는 트럼프는 곤란을 겪게 된다. 미국이 7월 6일 중국 상품 340억불에 25%관세를 부과한 후,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중국은 트럼프 지지층이 집중된 콘벨트(corn belt)에 금전적 타격을 주어 트럼프의 정치기반을 흔들 의도인 것이다.<sup>15)</sup>

중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375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sup>16)</sup> 양국의 무역

---

14) 『조선일보』, 2018년 3월 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201803100019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2018031000198.html)(2018. 07.31. 검색)

15) 김민수 (2018).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의 곡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7권 5호, 91-105면.

16) 『조선일보』, 2018년 6월 8일: 미국상무부는 2017년 대중국 무역적자액을 3752억

수지의 불균형은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다. 2012년부터 미국의 적자가 30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sup>17)</sup>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sup>18)</sup> 본 사설에서도 미국의 네 가지 주장이 나열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강대한 경제역량이다”, “WTO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게 불공평하다”, “백악관 수석경제고문 커들로는 중국은 3세계가 아니고 제1세계 국가다” 등이다. 미국은 사실적인 수치와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에게 상당한 금액의 무역적자를 보고 지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반면 시진핑은 2017년 다보스 포럼, 2018년 중국 양회, 2018년 4월 10일 보아오포럼 등에서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이미 상당량의 무역 흑자를 보아 왔다. 중국이 희망하는 것은 현상의 유지이며, 자유무역 신봉 국가로의 이데올로기 광고 효과를 얻는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글로벌리더 역할을 뺏어오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기회만 있으면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미·중은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서로 명분 쌓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상 트럼프의 정치적 공약실천과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란 이유를 제외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을 강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中國製造2025’ 때문이다.<sup>19)</sup> ‘中國製造2025’는 중국의 경제 모

달리로 보고하고 있음. 반면, 중국해관총서는 2017년 대미 무역흑자액을 2758달러로 보고하고 있음. 적자액에 대한 양국의 통계자료조차 차이가 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236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2360.html)(2018.08.07. 검색)

17) 『머니투데이』, 2018년 3월 30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814302180228>(2018.07.31 검색)

18) 『SBS』, 2018년 4월 6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0978&p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0978&plink=ORI&cooper=NAVER) (2018.07.31. 검색)

19) 김관옥 (2018),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1(1), 59면.

델을 ‘양적 성장’→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기반 육성, 기술 혁신, 녹색 성장을 기치로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0대 핵심 산업을 선별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각종 보조금과 혜택 등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sup>20)</sup> 중국의 목표는 이러한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와 기업은 민관이 한 마음으로 자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다국적)기업을 압박해 첨단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고, 산업스파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빼내는데 힘을 쏟아 왔다.<sup>21)</sup>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미국은 4월 3일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을 중심으로 고관세(25%) 방침을 내놓았고, 5월 3~4일 양국의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2020년까지 대미 무역 흑자를 2000억 달러로 축소할 것과 ‘中國製造 2025’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거부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은 7월 6일 340억 달러 상품에 25% 관세부가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시진핑(習近平)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中國製造2025’를 정 조준해 시 주석을 괴롭히는 동시에, 중국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 동력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즉 미국은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sup>22)</sup>

미·중의 ‘경제적’ 패권경쟁은 사실상 국가 간의 전면적 패권경쟁과 궤를 같이 한다. 양국은 정치·경제·군사 영역을 망라하여 국운을 걸고 패권 다툼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sup>23)</sup>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해석 불가능한 것이다. 이춘근은 미국이 일본의 경우처럼 중국에게도 ‘잃어버린 20년’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24)</sup> 따

20) 『한겨레』, 2018년 4월 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39138.html>(2018. 07. 31. 검색)

21) 『한국경제』, 2018년 6월 23일.

[https://www.youtube.com/watch?v=XOTZIUzfluE&list=PLh6kUo7pqm\\_6xOcQXsuOysI-pOx205yaI&index=6](https://www.youtube.com/watch?v=XOTZIUzfluE&list=PLh6kUo7pqm_6xOcQXsuOysI-pOx205yaI&index=6)(2018. 07. 31. 검색)

22) 『연합뉴스』, 2018년 6월 24일.

[23\) 최태훈\(2018\), 「사드관련 환구시보 사실 비판적 담화분석-“完成部署薩德的韩国决不会更安全”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언어학회』 74집, 236-237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3/0200000000AKR20180623003500072.HTML?in(2018.07.31. 검색)</a></p>
</div>
<div data-bbox=)

라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고 그 위협을 통렬하게 감지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핵심 국책사업 ‘中國製造2025’는 중국의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중국이 미국 때문에 “自廢武功”하고 “逼上梁山”해야 할 처지가 된다면,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보통무역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는 것이며, 장차 미국의 전면적 우세를 영구화하려는 전략행동인 것이다.”(這不是普通貿易戰，而是美方遏制中國崛起，要將美國全面優勢永久化的戰略行動。)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의도를 읽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빌미로 시비를 걸어오지만,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제기와 하이테크 창의능력에 타격을 주어 패권경쟁에서 밀려나도록 하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사실은 중국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sup>24)</sup>

둘째, “抗美援朝”를 소명하여 미국을 비난·협박하고,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심의 이반을 다독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미·중무역전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지점임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지나친 무역흑자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다 하여도, 중국 스스로가 자유무역 옹호 국가임을 자처하여도, 미국에게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미국과의 무역전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의도는 중국의 굴기를 꺾어 놓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일본에게 환율협상을 요구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20

24) 『월간조선』, 2018년 8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20180810033>(2018.07.31. 검색)

25) 『NEWSIS』, 2018년 5월 4일: 중국정부의 의도는 5월 3일 趙錫軍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의 발언을 참고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이다”, “미국이 ‘中國製造 2025’ 전략을 제한하려 한다면 중국 당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면 중국 국민들에게도 해명할 길이 없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4\\_0000300048&cID=10111&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4_0000300048&cID=10111&pID=10100)(2018.08.02 검색)

년’을 초래하게 하였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판 ‘잃어버린 20년’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안 좋아진 중국은 舌戰에 초강수를 두어 미국이 개입했던 6·25를 그들 방식의 “抗美援朝”란 이름으로 소명하기 시작한다. 즉 과거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선인 압록강을 건드려 곤란해졌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면 즉시 반격하여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고 협박하여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고, 그 명분을 디딤돌 삼아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분열될 수 있는 민심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하여야만 시진핑 정부가 존립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이미 언급한 ‘中國製造2025’의 포기 불가방침과 “抗美援朝” 소명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데올로기 전술이며, 본 사설은 그런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필자는 앞선 ‘상호텍스트성’에서 중국이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을 밝혔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은 협상의 여지,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양국이 서로 으르렁 거렸던 내용만 정리해보면,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8월 2일 필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 양국은 무역전에서 340억불의 상품에 대해 관세 25%로 치고받았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되기 전의 지루한 말싸움과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비록 결렬되었지만 5월 3~4일과 같은 양국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는 미국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것이고, 본 사설은 그 의중을 은근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는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사설에 대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의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기술에서는 전쟁프레임과 전쟁어

회로, 상호텍스트성에서는 “대등한 보복”과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로, 사회문화적 수행에서는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 전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실은 ‘전쟁’과 관련된 어휘와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貿易戰”은 ‘전쟁(戰)’에 대한 여러 심상을 떠올려 ‘무역’을 ‘전쟁’으로 은유하고 있다. 또한 “抗美援朝”라는 전쟁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 국민들에게서 진짜 전쟁의 공포감을 끌어내고 있다. 즉 원천영역 ‘전쟁’과 목표영역 ‘무역’에서, 원천영역 ‘抗美援朝’와 목표영역 “무역”으로 공포를 더욱 강화시키는 은유가 보이고 있다. 또한 “貿易戰”과 “抗美援朝”는 전쟁프레임을 갖춘 어휘인 것이다.

둘째, “戰略”은 전쟁·정치·경제 등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이다. 그러나 본 사설에서 보이는 “戰略”의 활용은 중국에게는 의도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미국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전쟁 용어가 사용되었다. “打”가 10가지 형태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전쟁과 직접 관련 있는 표현들은 “痛擊”, “進攻”, “交鋒”, “爆發”, “戰鬪”, “挑戰”, “武器”, “彈藥”, “美軍飛機大炮”, “志願軍”, “戰前動員”, “核心利益線”, “人在陣地在”, “防線”, “勢均力敵”, “抵抗勢” 등이 있으며, 冲擊, 冲突, 較量, 粗暴, 霸權, 大棒, 등도 전쟁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다.

넷째, ‘引喻法’을 살펴보면, 전쟁관련 표현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自廢武功”과 “逼上梁山”이란 표현을 통해 저자는 소설 속 표현을 자신의 사설에 인용하여 뜻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설이 “一把炒面一把雪과 “中國人躲進坑道里, 美國人狂轟濫炸”를 사용한 의도는 과거의 전쟁을 이겨낸 자신감을 중국 국민들에게 주고, 결집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담화적실천)을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의 기타 8개 사설을 확인해 보았으며,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등한 보복’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당한 만큼 미국에게 보복해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4월 7일자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는 시간적으로 앞선 사설의 맥을 이어 동

일한 논지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환구시보가 ‘대등한 보복’을 줄곧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반격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그런 중국이 하는 전쟁은 ‘자위적 차원의 반격전(自衛反擊戰)’이 되도록 포장해 주기 위함이다. 또한 환구시보는 “抗美援朝” 전쟁을 “自衛反擊戰”의 실제 모델로 상징하고, 무역전은 “抗美援朝”와 마찬가지로 “核心利益線”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불가항력적으로 싸워야하는 “自衛反擊戰”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설의 연계는 환구시보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사설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은(두렵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인민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함에 있다. (2) 반복된 “무섭지 않다”는 오히려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이 결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암암리에 부여한다. (3) “두렵지 않다”를 통해 중국은 체면을 차리고, 미국에게는 “싸우기 싫다”는 ‘싸인’을 보내는 고도의 수사학이다.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역시 전반부(1-6문단)와 후반부(7-11문단)로 나뉘어, 무역전을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과 抗美援朝 전쟁을 끌어내어 미국과의 무역전이 두렵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맥락상 같은 논지가 약 3개월(2018. 03. 23.~06. 17.)의 시간차를 두고 9개 사설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의 예라 할 것이다.

본 사설의 사회문화적 수행은 중국 정부의 패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에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입장에서 핵심 국책사업 ‘中國製造2025’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이에 본 사설은 중국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둘째, 사설은 역사상의 실제 전쟁인 “抗美援朝”를 끌어들여 미국을 비난·협박하고,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심의 이반을 다독이며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하고 있다. 중국이 ‘싸

우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을 상기해 보면, 사회적 맥락에서도 협상의 여지,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5월에 있었던 양국의 협상을 놓고 판단해 보아도,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본 사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연구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한 경제 분석과 국제정치 이론을 통한 정치 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다.<sup>26)</sup>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중국의 정치미디어를 연구의 기본 토대로 삼아 비판적 담화분석을 진행한 논문이다. 미중무역 전쟁에 대해 언어분석을 통한 접근을 한 점과 중심자료가 중국 사설인 점은 본 연구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과거 영·프 간의 '100년 전쟁'은 실제 100년이란 시간 보다 더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싸움이었고, 미·소의 '냉전'도 반세기에 걸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야 끝이 났다. 미·중의 싸움도 아마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예상되는 긴 싸움 속에서, 필자의 연구가 선후배 학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6) 예를 들어 정인교, 오경수 (2018)의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과 김천구, 오준범, 신유란, 홍준표, 정민, 김수형 (2018) 등의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경제 분석 연구이며, 최경준 (2018)의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투영된 과거, 블랙박스 처리된 현재, 추청된 미래」는 정치 분석 연구이다.



## 참고문헌

- 김관옥,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1(1), 2018.
- 김민수,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의 곡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곡물 시장동향』, 7권 5호, 2018.
- 김천구·오준범·신유란·홍준표·정민·김수형,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 경제의 위기」, 『이슈리포트』 (11), 2018.
- 신선경,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은유-은유의 생성과 수용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20권, 2006.
- 이성만, 『미디어 언어의 텍스트화용론』, 광명: 경진, 2012.
- 이원표,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1.
- \_\_\_\_\_, 「신문 사설에서의 직접인용: Bakhtin의 ‘대화성(dialogicality)’ 관점에서의 분석」, 『담화와 인지』 12권, 2005.
- \_\_\_\_\_, 「신문에서의 새로운 장르, ‘뉴스분석’: 언어 및 담화적 실현과 혼합적 성격」, 『담화와 인지』 16권, 2009.
- \_\_\_\_\_,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2015.
- 임혜원, 「선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 [선거는 전쟁이다]」, 『담화와 인지』 4권, 1997.
- 정인교·오경수,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18(5), 2018.
- 최경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투영된 과거, 블랙박스 처리된 현재, 추정된 미래」, 『국제정치연구』, 21(1), 2018.
- 최윤선,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14.
- 최태훈, 「사드관련 환구시보 사설 비판적 담화분석-“完成部署薩德的韩国决不会更安全”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어학회』 74집, 2018.
- Fairclough, Norman/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광명: 경진, 2011.
- Fairclough, Norman/이원표 역,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Fairclough, Norman/김지홍 역, 『담화분석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트 분석』, 광명: 경진, 2012.

Fairclough, Isabela & Fairclough, Norman/김현강 · 신유리 역, 『정치담화분석』, 서울: 박이정, 2015.

Lakoff, George/유나영 · 나익주 역,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서울: 와이즈베리, 2015.

Lakoff, George & Wehling, Elisabeth/나익주 역, 『이기는 프레임』, 서울: 생각정원, 2016.

van Dijk, Teun/정시호, 『텍스트학』, 서울: 민음사, 1995.

## 부록

環球時報社評：「用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2018.04.07.)

中美貿易戰的形勢有迅速升級之勢，華盛頓和北京實際都在做“戰前動員”，雙方沒有談判，而且各自對這場沖突認識的差距不斷擴大，貿易戰實際爆發的可能性在快速增加。

特朗普政府堅持宣揚“美國吃虧”說，特朗普5日發推特，將中國稱為“強大的經濟力量”，并鼓吹WTO將中國視為發展中國家“對美國不公平”。白宮首席經濟顧問庫德洛迎合特朗普的表態稱，中國不是第三世界國家，而是第一世界國家。

與此同時，美方繼續指責中國盜竊了美國的知識產權，華盛頓要通過這次貿易戰打擊中國高科技創新能力的意圖進一步變得清晰起來。美方的言行幫助中國社會確立了這樣的認識：這不是普通貿易戰，而是美方遏制中國崛起、要將美國全面優勢永久化的戰略行動。

這樣一來，中美貿易戰的性質就發生了變化，兩國貿易戰很難以美日的化解模式加以解決。雙方都認為它事關各自國家在未來世界經濟中的地位 and 整個國家前途，那麼很可能雙方都會使出最大的力量，不惜代價地將貿易戰打下去，使它獲得某種決定性意義。

華盛頓是否真是這樣想的，我們沒有絕對把握。但是從美方傳來的各種信息匯集到一起，確實在把中國社會朝這一戰略判斷方向推。這場貿易戰是在華盛頓數個報告將中國列為戰略競爭對手并且突出大國戰略博弈之後發生的，中國人沒有不做最壞思想準備的理由。

中國一直是溫和的崛起大國，也是建設性中美關係的積極倡導者。但是一段時間以來，華盛頓不斷發出轉變對華戰略的信息，增加了中方的警覺。這次美方發動貿易戰的方式尤其粗暴，開出的是讓中國“自廢武功”的價碼，它在將中國逼上梁山。以貿易戰對貿易戰的方式對美開展全面抵抗勢必成為中國的唯一選擇。

以當年抗美援朝那樣的意志堅決打垮特朗普政府的貿易進攻，正在作為中國上下的戰略決心樹立起來。抗美援朝給中國造成了損失，但它迫使美方

在三八線上最終簽字，重創了華盛頓的戰略傲慢，贏得了之後很多年美國社會對中國的戰略尊重。今天的中美貿易戰，要求我們有同樣不怕犧牲、不惜代價的戰略氣概，堅決打出迫使美國將對華不斷揮舞的大棒當柴火燒掉的中美關係新局面。

抗美援朝的發生是因為美國軍隊打到了鴨綠江邊，今天美國發起的貿易戰也在衝擊中國的核心利益線。我們無處可退的危機感，和為維護國家根本利益決不可對美方讓步的堅定意志正在中國全社會凝聚起來。我們知道將付出一些犧牲，但我們更了解，霸權的貪欲是沒有底線的。如果我們今天不築起“人在陣地在”的鋼鐵貿易防線，那麼明天我們會失去什麼將是無法預測的。

必須指出，今天的中國與美國打貿易戰，與60多年前打抗美援朝時候的中美力量對比已經完全不可同日而語。今天的中美貿易戰是大體勢均力敵的較量，美國的絕對優勢是華盛頓自吹自擂的，這將不是美軍飛機大炮對志願軍“一把炒面一把雪”的戰鬪。北京有能力在每一場貿易戰交鋒中打痛華盛頓，讓美方蒙受與中國大致相同的損失。

我們有充分的根據相信，這場貿易戰是中美一起打，一樣痛。“中國人躲進坑道里，美國人狂轟濫炸”不可能是這場貿易戰的邏輯。中國打貿易戰的武器和彈藥十分充足，我們的主動性和創造性將有巨大發揮空間，由於貿易戰帶來的痛苦將刺激中國經濟轉型和戰略創新能力，它很可能成為加快中美綜合實力進一步接近的機緣。

讓美方重新認識中國體制團結全國人民痛擊外部經濟強權挑戰的特殊能力吧。美方用貿易戰施加的壓力有多大，我們的反作用力就將有多大。讓兩個體制圍繞貿易戰來一次較量，看看硬碰硬時，到底中國還是美國更能夠堅持，更有本事逆風揚帆。

❖ ABSTRAC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rough Comparisons  
Between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Huánqiú*  
*Shíbào* on the 2018 United States–China Trade War

Choi, Tae-hoon

Employing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inguistically significant features, intertextuality, and sociocultural practice focusing on selected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Huánqiú Shíbào* on the 2018 United States-China Trade War. The editorial titled “With the strong will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Chosun,’ let us go through the trade war against America” focused on the use of ‘war’ related vocabulary in the frame of ‘war.’ First, “Trade War” and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Chosun” are examples that reveal metaphors and a war frame. Second, “Strategy” is used positively for China but negatively towards America. Third, various war related words are used. Fourth, cases of allusion illustrate war. Intertextuality in terms of discourse practice pertains to two findings. First, *The Global Times*, *Huánqiú Shíbào* repeatedly uses the phrase ‘equivalent revenge.’ That is because the expression enables China to justify their counterattack and such war that China may wage can be interpreted as just counterattack much like a self-defense mechanism. Second, the expression, ‘the counterattack is not intended but it is not fearful’ is repeated in several editorials of the newspaper. The reasons are the following: 1) it is used to appeal to the public, 2) by invoking the feeling of fear, the public should be understand why they should unite, and 3) the expression, “it is not fearful” is used to preserve China’s global image and “the counterattack is not intended” is used to signal China’s will to America. The whole expression is a good example of intertextuality that repetitively

illustrates the intended meaning of China in nine editorials in the newspaper within three months, March 23-June 17, 2018. Finally, sociocultural practice is manipulated through the editorial for disseminating the Chinese government's hegemonic ideology. First, it is clear that the core national project, "China Manufacturing 2025" cannot be abandoned. Second, by calling for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Chosun" the editorial is manipulated to condemn and intimidate America, avoid dissent of the people, appeal to the people, and empower the government. Third, China somehow wants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The Global Times(Huánqiú Shibào)*, Editorials,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United States-China Trade War, Textual Practice, Intertextuality, Sociocultural Practice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